

검정고시 보고 미용기술 연마... 꿈에 한발 다가서다

"가채점 해보니 평균 85점 넘었어요. 합격한 거 같아요."

지난 6일 오후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온 민영은 빠른 속도로 말을 쏟아냈습니다. "아~ 이런 결과가 나오니 기쁘고 뿌듯해요. 올해 기초를 쌓고 내년에는 수능을 봐서 대학에도 갈 겁니다. 반드시 상담교사가 될 거예요." 휴대전화 너머의 민영은 적잖이 흥분해 있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작은 소리로 말하던 아이는 수다쟁이가 돼 있었습니다.

민영은 이날 고졸 검정고시를 치렀습니다. 평균 80점 이상이면 합격이니 무난히 고졸 졸업 자격을 손에 쥐어 줍니다. 8개월여 노력이 결실을 본 순간이자 죽음의 공포를 완전히 떨친 날이기도 합니다.

민영은 과거 5차례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부모가 이혼한 뒤 대구 할머니에게 맡겨졌을 때 처음 음독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후 학교를 그만두고 지독한 외로움과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고 두려워하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지독한 외로움, 타인에 대한 이유 없는 미움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민영은 꿈나눔 캠프에 참가한 뒤 '은둔형 외톨이'에서 벗어나 세상에 손을 뻗기 시작했습니다. 상담교사를 꿈꾸게 된 '롤 모델'도 캠프 강사였습니다. 민영에게 검정고시는 첫 도전 과제였습니다. 시험 부담감으로 한동안 완화됐던 불안증 증상도 약화했습니다. 검정고시에 좌절하면 과거로 돌아갈까 무서웠습니다.

냉랭했던 아버지는 발버둥치는 아이에게 다시 사랑을 쏟아냈습니다. 시험 전날 긴장한 아이들을 위해 막노동으로 지친 몸을 추슬러 함께 영화 '명량'을 보고 저녁식사로 하며 용기를 북돋워줬습니다. 시험을 치른 뒤 민영은 자신에 대한 믿음을 회복한 듯합니다. "반신반의했어요. 할 수 있을지... 이제 나 자신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롤 모델'을 만난 뒤 바빠진 아이들 규석은 미용기술 연마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밤에 활동하는 '올빼미' 습관은 여전히 하지만 내용은 달라졌습니다. PC방 출입을 끊었습니다. 아르바이트 후 아는 미용사로부터 새벽까지 머리감기기 등 필수 기술을 익히고 있습니다. 2주간 하루 2~3시간씩 거르지 않았습니다. "노는 거 포기했어요. 돈 많이 벌어서 더 재미있게 놀래요."

규석은 지난달 24일 본보 멘토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국내 굴지의 '뷰티 살롱' 라뷰티코아 도산점의 정준 대표원장을 만났습니다. 정 대표는 불우한 환경을 이겨내고 역대 연봉의 해어 디자이너로 꿈을 이룬 인물입니다. 견습생 월급 8만원으로 시작했지만 현재 정상급 연예인들을 고객으로 관

리하며 '슈퍼스타K' '댄싱9' 등 방송 출연자들의 헤어스타일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규석이 되고 싶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정 원장은 규석에게 "학원비 구하려고 닦치는 대로 일했다" "노력 끝에 서초동에서 유명해졌지만 중심 무대인 압구정동 청담동에서 인정받으려고 견습생부터 다시 시작했다"는 등의 역경 극복 스토리를 들려줬습니다. 정 원장은 규석에게 기초적인 미용기술만 익힌 뒤 이력서를 갖고 오라고 권했습니다. 규석은 '준비된 모습'으로 정 원장에게 이력

서를 들고 갔. 그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희는 가정문제, 진로문제 등으로 자해를 하던 아이였습니다. 미용 관련 고교에 진학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자포자기에 빠졌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기 직전 꿈나눔 캠프에 들어왔습니다. 이후 학교 공부를 중단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희의 멘토로 나선 이는 라뷰티코아를 설립한 김현태 대표였습니다. 민희는 김 대표로부터 "학교를 그만두지 말라" "독서로 지식을 축적하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아름다운으로 고객의 마음을

지 '힐링'하려면 다양한 분야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게 김 대표의 직업관입니다. 민희는 면담 후 메이크업 전문가로부터 화장을 받아봤습니다. 민희는 "최고 프로의 손길을 느껴보니 마음이 급해졌어요. 이 자리에 빨리 서고 싶다는 생각뿐이에요"라고 했습니다. 민희는 "미래를 위해 학교에서 될 준비하고 노력해야 할지 알게 됐다"며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Dreams come true!

민영(위 사진)이 지난 6일 고졸 검정고시를 치른 뒤 자신의 수험표를 뿌듯하게 바라보고 있다. 민영은 가채점 결과 85점 이상이 나와 무난하게 합격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희와 라뷰티코아 김현태 대표(아래 왼쪽 사진 오른쪽)가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구 안주로 라뷰티코아 도산점에서 면담을 마친 뒤 다행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규석의 멘토가 된 라뷰티코아 도산점 정준 대표원장(오른쪽 사진 오른쪽)이 규석에게 자신의 성공담을 들려주고 있다. 민영과 민희, 규석은 가명. 김지훈 기자

자살 시도만 5번했던 민영이	오토바이 사고뭉치 규석이	상습적으로 자해했던 민희
"평균 85점, 합격한 거 같아요"	'뷰티살롱' 견습생 1차 목표	멘토 김현태 대표와 만남 뒤
두려움 떨치고 자신감 얻어	새벽까지 머리손질 등 익혀	"이제야 뭘 해야 할지 깨달아"
상담교사 꿈 위해 계속 도전	"그때까지 노는 거 접었어요"	메이크업 분야 최고 될래요"

어릴적 '산전수전' 아이들 방향 이해 멘토로 꿈 나눌것

'라뷰티코아' 김현태 대표

"극우총리든 슈퍼스타든 제가 속이라면 무조건 머리를 조아리죠.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웃음) 국민일보 '꿈나눔 캠프' 아이들의 멘토가 된 뷰티살롱 '라뷰티코아' 김현태(43) 대표는 지난달 18, 24일 두 차례 캠프 아이들과의 만남에서 이런 농담으로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아이들은 눈과 귀를 모았습다. 연예계에 마당발 인맥을 가진 데다 불우한 가정환경을 극복한 그의 스토리는 흡인력이 강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처지와 다를 바 없었던 그가 들려주는 성공 스토리에 빠져들었습니다. 헤어 디자이너를 꿈꾸는 규석(이하 가명·18)과 메이크업 전문가를 꿈꾸는 민희(17·여)의 경우 더욱 그랬습니다.

김 대표는 부모님의 연이은 사업 실패로 인한 변두리의 할머니 덕에서 유년시절을 보냈습니다. 지독한 가난에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으며 중학생 때부터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미성년자라 취업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그는 유증업소 등에서 일하며 불량 청소년으로 성장했습니다. 노동부장관 때 '범죄와의 전쟁'으로 유증업소들이 철퇴를 맞아 카지노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19세에 우연히 본 미용사 모습에 매료돼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금호동에서 월 5만 원짜리 옥탑방에 살며 미용학원에 등록했습니다. 학원비를 벌기 위해 한 해 아르바이트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배고프게 미용 기술을 배웠어요."

그러나 김 대표만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딱지는 대로 여러 가지 일을 하며 몸에 밴 서비스 정신입니다. 김 대표는 업계에서 최고가 되려면 미용기술뿐 아니라 대화 능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를 못 다녔던 단점을 극복하려고 폭넓게 책을 읽었습니다. 20대 중반에 역대 연봉자가 됐지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독립해 라뷰티코아를 차렸고 현재는 23개 매장을 갖춘 국내 최고급 '뷰티살롱'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중요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절대 모르죠. 사회가 얼마나 냉정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지. 자신감을 가지고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능력을 갖추세요."

김 대표는 앞으로도 미용사가 되려는 꿈나눔 캠프 아이들의 멘토로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라뷰티코아는 이들을 위한 인큐베이터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김 대표는 영국이나 미국의 유명 '뷰티 스쿨'과 같은 국제적인 지명도를 갖춘 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류로 우리나라 관련 산업이 호기를 맞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학교를 캠프 아이들처럼 불우한 환경 속에서 꿈을 포기하지 않는 이들을 위한 요람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이도경 기자

소자본 성공·안심 창업

미쓰 수제 고로케 전문점 창업대세!!

미쓰 수제 도넛·고로케 성공포인트

- ✓ 소자본 남녀 누구나 창업가능
- ✓ 손쉬운 창업 전문점 아이템
- ✓ 매출의 경쟁력 강화
- ✓ 분사 가맹점 중앙 공급
- ✓ 고로케, 도넛 외 커피, 눈꽃빙수 복합매장 운영 가능
- ✓ 테이크 아웃과 매장형, 푸드카, 포장차 가능
- ✓ 전문점(단일몰) 판매점 시대

소자본 안심창업 직접 만든 수제 전문점

- ✓ 고로케 15종류, 도넛 5개 종류 판매
- ✓ 계절별 메뉴 신제품 수시로 개발
- ✓ 소자본 창업의 최강자 사업
- ✓ 절대 안심 초보자 창업 OK
- ✓ 직접 만든 수제 고로케, 도넛 판매
- ✓ 매일 신선한 고로케와 도넛 공급
- ✓ 고로케와 도넛은 누구에게나 기초식품
- ✓ 국내 최고의 전문조리사가 간편하게 조리하도록 기술 전수

www.미쓰고로케.com 체인본부 :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57-5 이노플렉스 806호 창업문의 : 02) 2068-5844